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의복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

정인희·박상진·권영일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Response to Clothing Utility-Reduction according to Clothing-Wearing Motives

Ihn-Hee Chung · Sang-Jin Park · Young-Il Kwon

School of Advanced Material and System Engineering,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2001. 5. 9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1) to examine the results of previous qualitative research on clothing-wearing motives by quantitative approach, (2) to explore the concept of clothing utility, utility-reduction and discard, and (3)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lothing-wearing motives on consumer attitudes and consuming-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443 collegiate students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of 2000, and 39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3 groups were identified on the basis of clothing-wearing motives and named by extroversion group, introversion group, and least clothing-cognizing group respectively. This supported the qualitative results in part, especially in the direction of motives. Clothing utility-reduction factors were identified as appearance damage, social-psychological damage, and abandonment-causing damage. The 3 groups were responded on utility-reduction differently, thus clothing-wearing motive variable was determined as useful in fashion marketing.

Key words: Clothing-wearing motives, Consumer classification, Utility, Utility-reduction, Discard;
의복 착용 동기, 소비자 유형화, 효용, 효용 감소, 폐기

I. 서론

개인 취향이 보다 존중되는 쪽으로 유행 현상이 변화하고 있는¹⁾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의복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의복이라는 상품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어떤 경우는 단순한 물리적 기능에 만족하며 의복을 착용하는 반면, 또 다른 경우는 의

복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의복을 통해서 자기가 지각된다는²⁾ 극도의 의복-자기 근접성을 가지고 의복을 착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의복 착용 동기의 차이에 따라서 구매를 포함한 의복 소비 과정의 여러 태도와 행동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정인희·이은영¹⁾은 질적 연구를 통해 의복 착용 동기를 상황적합성 인식, 심리적 편안함 인식, 인상 관리, 구별 욕구, 주의 집중 욕구로 제시하면서 이들 동기 수준의 발달은 의복에 대한 관심과 비례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의복 착용 동기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소비자 유형에 따라 의복 소비 행태가 달라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 집단에 대해 의복 착용 동기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결과를 비교해 보고, 집단별 의복 소비 행태의 여러 측면 중 의복의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의복의 효용 감소는 크게 물리적 손상에 의한 효용 감소와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 감소로 구분될 것인데, 이러한 효용 감소가 일어났을 때의 반응인 의복 중단, 즉 폐기는 의복 착용 동기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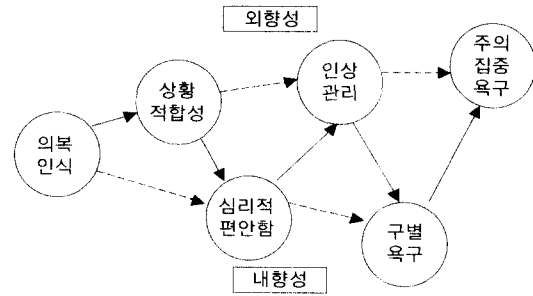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의복 착용 동기 및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의복 착용 동기란 사람들이 왜 옷을 입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물리적인 이유로, 또 미적이고 표현적인 이유로 의복을 착용하게 된다. 정인희·이은영¹⁾은 면접법에 의한 질적 분석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걸쳐 차이가 나는 의복 착용 동기는 상황적합성 인식, 심리적 편안함 인식, 인상 관리, 구별 욕구, 주의 집중 욕구라고 하였으며, 이들 욕구는 의복 관심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복 착용 동기 수준의 상승은 [그림 1]과 같이 외향성과 내향성 사이를 왕복하며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분석심리학자인 융(Jung)에 따르면 외향성(extroversion)에서는 정신 에너지(리비도 libido)가 객관적인 외계의 여러 가지 표상에 쏠리고, 대상, 인물, 동물 등의 환경적 사실이나 조건에 대한 지각, 사고, 감정에 투영되며, 내향성(introversion)에서는 리비도가 주관적인 정신 구조와 정신 과정으로 흘러 들어간다²⁾고 했는데,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하는 것은 성격의 차원과 욕구의 방향, 동기의 방향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의복 착용 동기에서 상황적합성 인식, 인상 관



출처: 정인희·이은영 (1999), p. 134.

[그림 1] 의복 착용 동기의 수준 상승과 외향성-내향성

리, 주의 집중 욕구는 외향적 요소로서 환경 의식적이고 타인 의식적인 반면, 심리적 편안함 인식, 구별 욕구는 내향성을 띠는 동기로서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한 생각, 기분, 느낌을 통해 의복 착용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한편 정인희·이은영¹⁾은 어느 수준까지의 의복 착용 동기를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을 그 집단이 가지는 최상위 수준의 의복 착용 동기를 빌어 의복 최소 인식 집단, 상황적합성 인식 집단, 심리적 편안함 인식 집단, 인상 관리 집단, 구별 욕구 집단, 주의 집중 욕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로 제시된 이들 의복 착용 동기를 척도화하여 양적 조사함으로써 의복 착용 동기 모델 및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모델을 검증하는 한편, 의복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복 착용 동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의복의 효용 감소와 폐기

의복의 폐기란 의복이 버려지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소각이나 매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소실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더 이상 착용되지 않아 실제적 수명이 다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의복이 생활필수품으로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에는 아직도 쓸만한 많은 의류제품들이 쉽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빠른 유행의 변화는 심리적인 의복의 수명을 단축시켜, 입지도 않으면서 유행이 지난 옷은 주거 공

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자원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⁴⁾. 또한 신소재의 개발과 가공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복의 물리적, 수명이 연장되고, 유행으로 인해 의복의 사회적 수명이 감소되어 떨어져서 못 입는 의복은 없다고 하나, 아직도 소비자들은 내구성, 형태 유지성 면에서 인조 섬유에 비해 뒤떨어지는 천연 섬유를 애호하고 있으며 인조 섬유 역시 필링 발생이나 오염 축적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⁵⁾.

효용은 어떤 재화의 소비에 따른 욕망 충족의 정도로서⁶⁾, 의복의 경우 착용 상황별로 의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심리적 만족의 내용이 달라지며⁷⁾, 소비시간의 증대에 따라 점차 효용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폐기에 이르게 된다. 유연실⁸⁾은 성인 여성의 전반적 의복 폐기 의사 결정 요인으로 적합성에 대한 불만, 물리적 효용 감소, 유행 변화, 품질 불만, 싫증이나 취향의 변화, 불편함의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적합성에 대한 불만이나 품질 불만, 불편함 등의 폐기 원인은 의복 구매 의사 결정이 잘못 이루어져 자연 사장되는 경우이며, 물리적 효용 감소, 유행 변화, 싫증이나 취향의 변화는 제품 자체가 구매 당시에 주던 만족을 더 이상 주지 못하는 효용 감소에

의해 폐기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특히 Swan & Combs⁹⁾은 소비자의 제품 만족은 표현적 성과와 도구적 성과 모두에서 기인하나 불만족하는 제품은 표현적 성과보다는 도구적 성과와 더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의복 폐기를 유도하는 효용 감소는 물리적 손상에 기인함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 소비 관련 연구에서 물리적 손상에 대한 소비자 지각이나 반응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한편, 물리적 손상에 기인한 효용 감소와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하여 의복 착용 동기와 관련시켜 설명할 것이다.

3. 의복의 물리적 손상

의복은 착용하거나 보관하는 동안에 기계적인 힘, 열, 약품, 세제, 그밖의 오염 등으로 손상을 받는다¹⁰⁾. 의복의 물리적 손상 유형을 몇몇 저술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김성련·이순원¹¹⁾은 변형, 구김살, 취화, 변색, 퇴색, 필링과 보풀, 찢김과 터짐, 곰팡이 손상, 충해로 손상 내용을 정리했고, 성수광·권오경¹²⁾은 변형, 태

<표 1> 의복의 물리적 손상 유형

김성련·이순원 ¹¹⁾	성수광·권오경 ¹²⁾	이전숙 외 5인 ¹³⁾	본 연구의 측정 문항
변형	수축	수축	크기가 줄어든다
	늘어짐	신장	
	형무너짐	열에 의한 변형(합섬)	
구김살	구김	구김	세탁 후 다림질을 해도 옷에 구김이 생긴다
취화	강도 저하	섬유의 취화	옷이 낡아서 해지거나 찢어진다
변색	백도 저하	황변	흰색이 누렇게 변한다
	갈변·황갈변		
퇴색	염료의 탈락	변퇴색	색이 바랜다
필링과 보풀	모우 및 필링	보풀(필링)	보풀이 생긴다
찢김과 터짐	풀림	찢김·터짐	바느질 솔기가 터진다
곰팡이 손상	습기에 의한 성능 열화		곰팡이가 쓴다
충해	해충에 의한 성능 열화		벌레가 먹는다
		광택 변화	
	강연도의 변화	촉감의 변형	
		퍼키링	
		심지 수축에 의한 버블 현상	
		위생적 성능의 손상	

의 열화(나빠짐), 변퇴색, 강도 저하, 보관 중의 성능 열화로 섬유 제품의 성능 저하 내용을 대분류한 후, 변형에 수축과 늘어짐, 형 무너짐, 구김, 풀림을, 태의 열화에 강연도의 변화, 모우 및 필링, 광택을, 변퇴색에 오염의 침착에 의한 백도 저하, 세탁 용수 중의 철에 의한 갈변, 양모·견·나일론 제품의 황갈변, 염색물의 변퇴색을, 보관 중의 성능 열화에 습기에 의한 성능 열화와 해충에 의한 성능 열화를 포함시키고, 강도 저하는 단일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전숙 외 5인⁴⁾은 의류의 손상을 치수 변화, 외관 변형, 색상 변형, 위생적 성능의 손상, 촉감의 변형, 섬유의 취화, 열에 의한 변형, 내구적 성능의 손상으로 구분하고, 치수 변화에 수축과 신장을, 외관 변형에 구김, 보풀(필링), 광택, 퍼커링, 심지 사용에 의한 변형을, 색상 변화에 황변, 변퇴색을, 위생적 성능의 손상에 흡습성·투습성·발수성의 저하와 통기성·보온성의 저하를, 섬유의 취화에 잦은 세탁으로 인한 취화와 일광에 의한 취화, 장기보관에 의한 취화를, 내구적 성능의 손상에 찢김과 터짐을 포함시키고, 촉감의 변형과 열에 의한 변형은 단일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손상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손상에 따른 2차적 손상이라고 여겨지는 위생적 손상 내용은 제외하고, 원인은 다르더라도 현상적 결과로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항목으로 묶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10개 항목의 물리적 손상 문항을 개발하였다.

III. 연구방법

서울 및 대구·경북 지역의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기입식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의복 착용 동기 5문항과 의복 관심 2문항, 가을 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에 대한 물리적 손상 경험 10문항, 물리적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 10문항, 그리고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 4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의복 착용 동기를 묻는 문항은 정인희·이은영⁴⁾의 질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추출한 것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한다',

'입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옷은 입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은 입지 않는다', '새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 주기를 바란다'의 5개 문항을 제시하여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으며, 각각의 응답에 제시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의복의 물리적 손상 경험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10개 문항으로 가을 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에 대한 물리적 손상 경험을 '자주 경험한다', '가끔 경험한다', '잘 모르겠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각각 5점에서 1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의복의 효용 감소는 앞서의 물리적 손상 경험이 일어난 경우 10개 문항과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이 감소한 경우 4문항을 제시한 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입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약간 신경 쓰이지만 입는다', '가능하면 입지 않는다', '절대 입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각의 응답에 5점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그밖에 인구 통계 문항을 성별, 연령, 거주지, 학년 및 계열로 조사하였다.

2000년 8월 3일에서 9월 5일까지 총 443부를 조사하였으며, 한 문항이라도 누락이 있는 모든 질문지를 제외하고 396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160명(40.4%), 여자 236명(59.6%)이었으며, 서울 거주자 134명(33.8%),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262명(66.2%)이었다. 만 19세에서 21세까지가 50.5%로 과반수였고, 인문·사회 계열 32.3%, 자연·공학 계열 56.6%, 예능 계열 9.1%였다.

분석은 SPSSWIN 10.0을 사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치를 읽고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군집 분석, 분산 분석 및 다중비교를 실행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한다', '입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옷은 입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은 입지 않는다', '새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 주기를 바란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으로 전체 응답자에 대해 K-Means Cluster의 군집 분석을 실행한 결과 3개 집단으로의 분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개 집단은 5개 문항 모두에 대한 분산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집단 1에는 157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전반적인 의복 착용 동기가 모두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황적합성 인식, 인상 관리, 주의 집중 욕구 등 외향적 동기로 인한 착용 동기가 높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집단 1을 '외향 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에는 111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모든 유형의 동기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낮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집단 2는 '의복 최소 인식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에는 128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중간 수준까지의 의복 착용 동기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편안함이라는 내향적 동기가 강했고, 높은 수준의 착용 동기 중에서도 주의 집중 욕구보다는 구별 욕구가 컸으므로 '내향 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그림 1]에 제시한 정인희·이은영¹⁾의 의복

착용 동기 모델에서 착용 동기 수준의 상승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착용 동기의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결과는 의복 착용 동기의 방향성을 외향성-내향성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의복 착용 동기 모델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정인희·이은영¹⁾의 질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별 의복 착용 동기 수준의 상승에 따라 의복 최소 인식 집단, 상황적합성 인식 집단, 심리적 편안함 인식 집단, 인상 관리 집단, 구별 욕구 집단, 주의 집중 욕구 집단의 모두 6집단이 규명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3개 집단으로의 유형화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수에 이처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인희·이은영은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 즉,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혹은 대학생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피험자가 분포하고 있는 유형은 의복 최소 인식 집단, 상황적합성 인식 집단, 심리적 편안함 인식 집단, 인상 관리 집단이었던 바, 인상 관리 집단은 본 연구의 외향 동기 집단으로, 심리적 편안함 인식 집단은 본 연구의 내향 동기 집단으로, 의복 최소 인식 집단과 상황적합성 인식 집단은 의복 최소 인식 집단으로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이외의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피험자가 포함되었더라면 보다 질적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소비자 유형화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복 착용 동기의 각 수준을

<표 2>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대학생 소비자 유형

의복 착용 동기	집단 1 Mean (SD)	집단 2 Mean (SD)	집단 3 Mean (SD)	F-value	sig.
상황적합성 인식	4.28 (0.69)	3.23 (0.84)	4.06 (0.59)	75.719	.000
심리적 편안함 인식	4.34 (0.81)	3.63 (0.96)	4.59 (0.58)	46.465	.000
인상 관리	4.31 (0.69)	3.02 (0.92)	4.14 (0.62)	108.961	.000
구별 욕구	3.72 (0.92)	2.69 (0.78)	3.57 (0.75)	54.483	.000
주의 집중 욕구	4.39 (0.49)	2.57 (0.80)	2.59 (0.57)	408.289	.000
	외향 동기 집단 157명	의복 최소 인식 집단 111명	내향 동기 집단 128명		

선행 연구에서의 해석 내용에 근거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단일 문항 측정에 대해 큰 오류는 없어 보이나, 의복 착용 동기 수준 측정을 위한 다중 문항 척도를 개발한다면 보다 정확한 측정에 의한 연구 결과 비교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는 Kamakura & Wedel¹¹⁾의 테일러 면접 기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에 모든 응답자가 답하게 한 후 그 응답 점수로 군집화하였으므로, 선행 연구의 가설적 이론을 따른다면 하위 수준의 동기만 있고 상위 수준의 동기는 없는 사람들의 응답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정교화된 척도로 테일러 면접 기법을 도입해 봄으로써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결과를 대등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각 집단에 대한 인구통계적 프로필을 살펴본 결과, 외향 동기 집단과 내향 동기 집단에는 여학생과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의 상대적 비율이 높았으나, 의복 최소 인식 집단에는 남학생과 자연·공학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 외향 동기 집단에는 대구권 학생의 비중이 높았고 내향 동기 집단에는 수도권 학생의 비중이 높아, 섬유 패션의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대구권 학생들이 의복의 외적 표현성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의복 착용 동기 수준이 의복에 대한 관심과 비례해서, 의복 관심이 낮은 사람들의 집단은 의복 착용 동기가 단순했으며, 의복 관심이 높은 사람들의 집단은 보다 복합적인 의복 착용 동기를 가지고 있다¹²⁾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의복 관심 2문항과 의복 착용 동기 5문항에 대한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의복 관심 문항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나는 옷에 관심이 많다'와 '다음 날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미리 생각한다'로 측정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의복 관심도는 내향 동기보다 외향 동기와 더 밀접한 상관 관계에 있었으므로, 의복 관심도와 의복 착용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복의 물리적 손상 경험

의복의 물리적 손상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을 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의 경우 대학생들이 가장 자주 경험한 물리적 손상의 내용은 보풀이 생기는 것이었으며, 다음이 황변하는 것, 탈색되는 것, 바느질 솔기가 터지는 것의 순서였다. 곰팡이나 벌레에 의한 침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손상 경험은 소비자의 태도나 의견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적 사실에 대한 보고에 그치는 것이므로 의복 착용 동기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복의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

의복의 효용 감소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3을 넘지 않으므로 모든 효용 감소는 의복 착용 중단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복 착용 중단, 즉 넓은 의미의 폐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곰

<표 3> 의복 착용 동기와 의복 관심의 상관 관계

	나는 옷에 관심이 많다	다음 날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미리 생각한다
상황적합성 인식	.389**	.450**
심리적 편안함 인식	.002	.026
인상 관리	.397**	.357**
구별 욕구	.260**	.195**
주의 집중 욕구	.392**	.474**

**p<0,01

<표 4> 가을 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의 물리적 손상 경험

물리적 손상 내용 (N=396)	Mean (SD)
크기가 줄어들다	3.32 (0.88)
세탁 후 다림질을 해도 옷에 구김이 생긴다	3.30 (0.97)
색이 바랜다	3.61 (0.95)
흰색이 누렇게 변한다	3.74 (1.01)
옷이 낡아서 해지거나 찢어진다	3.03 (1.10)
곰팡이가 슬다	2.15 (0.98)
벌레가 먹는다	1.99 (0.94)
옷의 모양이 변한다(예: 팔꿈치 부분이 나온다)	3.47 (1.07)
보풀이 생긴다	4.03 (0.84)
바느질 솔기가 터진다	3.54 (1.04)

〈표 5〉 가을 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의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

효용 감소의 경우 (N=396)	Mean (SD)
크기가 줄어든 경우	2.64 (0.73)
옷에 구김이 많이 생긴 경우	2.81 (0.79)
색이 바랜 경우	2.23 (0.83)
흰색이 누렇게 변한 경우	1.87 (0.79)
옷이 낡아서 해지거나 찢어진 경우	1.63 (0.79)
곰팡이가 슾 경우	1.38 (0.63)
벌레가 먹은 경우	1.38 (0.65)
옷의 모양이 변한 경우 (예: 팔꿈치 부분이 나온 경우)	2.36 (0.84)
보풀이 많이 생긴 경우	2.59 (0.82)
바느질 솔기가 터진 경우	2.07 (0.88)
옷의 모양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경우	2.92 (1.06)
옷의 색깔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경우	2.99 (1.05)
많이 입어서 싫증이 나는 경우	2.93 (1.01)
다른 사람들의 옷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2.80 (1.07)

팡이나 벌레에 침해된 경우였으며, 대체로 물리적 효용 감소가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 감소보다 의복 폐기를 더 많이 유도하였다. 또한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은 표준편차가 커서 계속 착용 의사와 착용 중단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 추출과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여 실행한 결과 3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6>와 같다.

요인 1에는 색이 바랜 경우, 보풀이 많이 생긴 경

우, 구김이 많이 생긴 경우, 흰색이 누렇게 변한 경우, 옷의 모양이 변한 경우, 크기가 줄어든 경우, 바느질 솔기가 터진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물리적 손상의 결과가 겹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관 손상'으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분산의 21.94%를 설명하였다.

요인 2에는 옷의 색깔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경우, 옷의 모양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경우, 많이 입어서 싫증이 난 경우, 다른 사람들의 옷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었다. 문항 작성시에 표현적 성과와 관련된 효용 감소 내용으로 포함시킨 문항들이다. '외관 손상' 요인과의 의미 혼동을 피하고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심리적 손상'이라고 요인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분산의 19.34%를 설명하였다.

요인 3에는 곰팡이가 슾 경우, 벌레가 먹은 경우, 옷이 낡아서 해지거나 찢어진 경우가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가장 드물게 경험하는 물리적 손상인 한편,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가장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다. 따라서 요인명은 '폐기적 손상'이라고 하였다. 그 설명 분산은 17.30%였다.

즉, 소비자가 지각하고 반응을 보이는 의복 효용의 내용은 크게 외관 손상, 사회심리적 손상, 폐기적 손상으로 분류되는데, 유연실⁵⁾이 규명한 폐기 요인 중 본 연구에 포함시킨 내용인 물리적 효용 감소, 유행 변화, 싫증이나 취향의 변화와 비교해 보면, 물리적 효용 감소는 외관 손상과 폐기적 손상으로 구분되어 나타난 반면, 유행 변화, 싫증이나 취향의 변

〈표 6〉 의복의 효용 감소 요인

요인 1 외관 손상		요인 2 사회심리적 손상		요인 3 폐기적 손상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색이 바랜	0.717	색깔이 유행에 떨어짐	0.871	곰팡이	0.893
보풀이 생김	0.691	모양이 유행에 떨어짐	0.867	벌레	0.886
구김이 많음	0.688	싫증	0.698	낡아서 해지거나	0.585
누렇게 변함	0.604	부정적 반응	0.690	찢어짐	
모양 변형	0.603				
크기 줄어듦	0.526				
솔기가 터짐	0.507				
설명 분산: 21.94%		설명 분산: 19.34%		설명 분산: 17.30%	

화는 사회심리적 손상으로 묶여서 나타났다. 이는 측정에 투입한 문항 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유연실은 물리적 효용에 관련된 것으로 4문항을 포함시킨 반면, 유행 변화, 싫증이나 취향 변화는 모두 8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많은 문항에서 요인이 양분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효용 감소나 폐기 요인의 규명 시에는 이러한 문항 수 변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의복 착용 동기 집단별 의복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의 차이

의복 착용 동기 집단별로 의복 효용 감소에 어떤 반응 차이를 보이는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구하여 분산 분석과 던컨테스트에 의한 다중 비교를 실시한 결과가 <표 7>이다. 외향 동기 집단은 외관 손상과 사회심리적 손상 요인에 대해서 폐기 의사가 가장 강했다. 의복 최소 인식 집단은 모든 손상 요인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는 착용 중단 의사가 가장 낮았으며, 사회심리적 손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속 착용의 경향이 나타났다. 내향 동기 집단은 폐기적 손상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착용 중단 의사를 표명하였다.

즉, 외향 동기 집단은 외부 환경과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 착용시 주의 집중 욕구가 높으므로 의복의 외관 손상이나 표현적 성과, 즉 사회심리적 손상이 일어난 경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내향 동기 집단은 자신의 내부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의복 착용시 특히 심리적 편안함 인식이 매우 높으므로 외관이나 사회심리적 특성보다는 의복 자체의 단정함이나 깔끔함에 높은 관여를 보이고 있었다.

정인희·이은영¹⁾은 지각된 의복 소유량에는 의복

착용 동기 수준보다 외향성-내향성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내향성이 강한 집단은 의복 소유량에 불만이 없지만, 외향성이 강한 집단은 의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였고, 오현정²⁾은 외향적 성격의 사람이 캐주얼, 스포티, 젊음, 발랄함, 서양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내향적 성격의 사람은 단순한 이미지를 선호하며,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인터넷 정보 사용이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격이나 동기의 방향성에 따라 의복 선호나 소비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검증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외향 동기 집단, 내향 동기 집단, 의복 최소 인식 집단으로 분류한 의복 착용 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는 패션 마케팅에서 의미 있는 소비자 분류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3개 집단 분류는 VALS(Value and Life Style Program)¹⁾에서 제시한 외부지향형(outer directed), 내부지향형(inner directed), 욕구충동형(need driven)과도 같은 맥락에 놓이는 것이므로³⁾ 그 해석과 적용의 유용성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의복 착용 동기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양적 조사로 확인하고, 둘째는 의복의 효용 감소와 폐기라는 주제에 탐색적으로 접근하며, 셋째는 의복 착용 동기가 패션 마케팅에서 유용한 소비자 차별화 변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선행 질적 연구에서는 의복 착용 동기에 따라 6개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외향 동기 집단, 내향 동기 집단, 의복 최소 인식 집단의 3

<표 7> 의복 착용 동기 집단별 의복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

	외향 동기 집단 Mean (SD)	의복 최소 인식 집단 Mean (SD)	내향 동기 집단 Mean (SD)	TOTAL Mean (SD)	F-value	sig.
외관 손상	2.27 (0.55) A*	2.56 (0.57) B	2.37 (0.50) A	2.37 (0.55)	10.215	.000
사회심리적 손상	2.70 (0.82) A	3.20 (0.86) C	2.92 (0.78) B	2.90 (0.84)	11.826	.000
폐기적 손상	1.46 (0.60) B	1.64 (0.63) C	1.31 (0.46) A	1.46 (0.58)	10.217	.000

* A, B, C는 다중 비교 결과로 다른 문자 표기는 유의한 차이를 의미한다.

개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데서 기인하므로, 질적 연구 결과의 재확인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동기의 방향인 외향성-내향성 구분과 외향성-내향성 기준에 따른 의복 소비 행태의 차이는 매우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질적 연구 결과를 양적 연구 결과로 뒷받침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복의 효용은 소비자나 상품, 상황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의복 효용의 내용은 크게 물리적인 것과 사회심리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소비 시간의 증대에 따라 효용 감소가 생기면 그 의복은 사장되고 폐기된다. 즉, 의복의 효용은 시간에 의한 감소를 매개로 하여 폐기와 밀접한 상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의복의 기능 및 구매 전 혹은 구매 시점에서의 편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복의 소비가 진행되는 과정의 효용 감소와 그 결과인 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 내 학제적 연구의 범위를 넓히면서 의복 소비에 따른 물리적 손상의 경험 상태를 파악하고 물리적 손상과 사회심리적 손상에 대한 반응, 즉 넓은 의미의 폐기 행동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의복 폐기에는 사회심리적 손상보다 물리적 손상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보다 정교한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효용의 내용과 효용 감소로부터 폐기에 이르는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복 폐기 행동의 다양성에 대한 조사와 환경 문제와 폐기를 연계시킨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의복 착용 동기의 차이는 의복의 효용 감소에 대한 반응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의복 효용 감소 외에도 여러 패션 마케팅 관련 변수와 상관 관계를 가질 것이 기대된다. 그러

므로, 의복 착용 동기, 특히 동기의 방향성에 따른 외향 동기 집단과 내향 동기 집단의 의복 소비 행태 차이에 관한 연구도 주목해 볼만하다.

참고 문헌

- 1) 정인희·이은영, "의복 착용 동기와 유행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28-139, 1999.
- 2) Sontag, M. S. & Schlater, J. 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1982.
- 3) Hall, C. S.,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최현 역, 용 심리학 입문, 서울: 범우사, 1985.
- 4) 이진숙 외 5인, 섬유 제품의 성능 유지와 관리, 서울: 형설출판사, 2000.
- 5) 유연실,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42-156, 1996.
- 6) (주)두산, 엔씨이버 두산대백과사전, 2001.
- 7) 정인희·최선형·강순제,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서울·대전·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 253-264, 1997.
- 8) Swan, J. E. & Combs, L. J., "Product performance and consumer satisfaction: a new concept", *Journal of Marketing*, **40**(4), 25-33, 1976.
- 9) 김성련·이순원, *피복관리학*, 서울: 교문사, 1977.
- 10) 성수광·권오경, *섬유제품소비과학*, 서울: 교문사, 1995.
- 11) Kamakura, W. A. & Wedel, M., "Life-style segmentation with tailored interview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2**(8), 308-317, 1995.
- 12) 오현정, "성격 유형별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와 의복 구매 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5**(3), 606-616, 2001.
- 13) 임중원 외 3인, *소비자행동론*, 서울: 경문사, 1994.